조계종 '청정사찰 실천 지침' 시달

정부 완화 정책 맞춰 5번째 지침 내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5월 5일까지 계속 유지
법회, 지침 준수하며 실시
템플스테이 부분적 재개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을 밝힌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이 5번째 지침을 일선 사찰과 단체에 시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발표한 방영 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5월 5일까지 계속 유지하되, 기도와 법회 등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고 4월 20일 밝혔다.

조계종의 5번째 지침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은 사찰 일상 속 예방 지침과 기도 · 법회 시 실천 지침으로 나눠져 있다.

일상 속 예방 지침으로는 △사찰 방문객 마스크 착용 필수 △상주 대중과 종무원 마스크 착용 일상화 △법당 · 전각 출입 시 출입기록 작성 및 증상 확인 △사찰 · 전각 입구 손소독제 비치 △공용 물품 최소화 및 수시 살균 · 소독 △상주 대중 공양 시 일방향이나 지그재그로 앉기 등을 시달했다.

기도 · 법회 실천 지침으로는 △사전에 증상유무 확인 △법회 참석 신도 명단 작성 △개인 간격 1m이상 유지 △공양간 · 음수대 운영 중단 및 떡 · 과일 · 생수 대체 △참석자 반드시 마스크 착용 △공용 방석 · 법요집 사용 자제 △법회 전후 실내 공간 전체 소독과 방역 △노약자, 기저질환자 신도들 가정서 신행활동 유도 및 안내 등을 제시했다.

의심자 확인시 출입을 금지하고 신원확인 후 관할 보건소와 1339로 연락할 것과 출입구 주변을 소독하고 상황을 각급 기관과 공유할 것도 시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지역 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봉사 · 지원 등의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찰 소임자 중 1인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해 사찰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구본사 및 종단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했다.

조계종은 "향후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종교계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 대응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조계종은 지난 2월 20일 1차 긴급지침을 발표한 이래 2월 23일 2차 지침, 3월 19일 3차 지침, 4월 2일 4차 지침을 시달하고 법회 · 기도 연기와 자제를 일선 사찰에 당부한 바 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역시 방역상황을 고려해 윤4월 8일로 맞춰 연기해 5월 23~24일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됨에 따라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이 부분 재개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 단장 원경)은 "전국 139개 템플스테이 사찰의 프로그램 운영을 부분 재개한다"고 4월 20일 밝혔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만큼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만 진행한다.

아울러 문화사업단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정부가 종교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일부 완화함에 따른 결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우울감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대국민적 '코로나 블루(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템플스테이 운영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만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철저한 예방과 관리에 더불어 건강에 반드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일불교협 새 이사장 진각종 회성 정사 선출

부이사장 인구 스님 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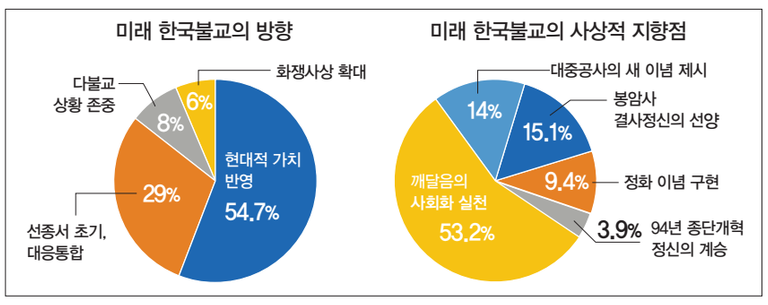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사진〉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4월22일 "3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40차 정기총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추천안에 따라 서면결의로 회성 정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부이사장에는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 사무총장에는 (재)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이 연임됐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6월8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40차 금산사대회를 내년 6월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신성민 기자

스님들 '불교 대중화 · 현대화' 열망

불교사회硏 설문 결과 발표
조계종 스님 1만명 대상 실시
수행체계 · 교리 재정비 요구



조계종 스님들은 미래 불교를 대비해 종단이 기존 선불교보다는 대승불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살행 등 현대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를 위해 교학 및 수행체계, 교리에 대한 현대적 재정비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인식은 불교사회연구소가 조계종 스님 1만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 주목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4월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미래설계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보고'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25개 교구본사 스님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종단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 미래를 주제로 대규모 설문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은 △신도영역 △미래사회 사찰의 역할 및 의례의식 △출가자 관련 종책과 대중생활 △종단의 현재와 미래지향적 종책 △신행과 사회적 역할 등 5개 주제로 분류한 100여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소장 유승무)가 선방수좌 296명을 포함한 1671명의 유효응답을 집계해 분석했다.

설문 결과 조계종 스님들은 승가 고령화와 출가자 및 스님수 급감, 종교지형 변화로 인한 신도수 감소 등 종단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재정립 및 종단 미래를 위한 변화에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항목은 종단의 미래지향적 종책 분야다. 특히 미래 한국불교의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서 '조계 선종의 입장에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아우른다'는 현행방침을 선택한 비율이 29.0%인데 반해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살행을 비롯한 현대적 가치관을 반영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54.7%로 과반수를 넘었다. 종단의 기본적인 지향점인 선불교보다 대승불교 정체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셈이다.

한국불교의 사상적 지향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53.2%)이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혹은 불교의 사회참여 강화)'를 꼽은데 반해, 기존 조계종의 사상적 뿌리로 손꼽혀 온 '봉암사 결사정신의 선양'와 '94년 종단개혁 정신의 계승', '정화이념의 구현'은 각각 15.1%, 3.9%, 9.4%에 그쳤다. 이는 미래 사찰의 역할 항목에서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해 85%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과도 맥을 함께한다.

또 교학 및 수행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응답자의 31.0%가 '매우 필요하다' 49.3%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6.9% 수준에 그쳤다. 현대사회 및 현대인의 근기에 부합하는 교리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85.1%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스님들 상당수가 교학 및 수행체계의 현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철 스님은 "조사를 토대로 포커스 그룹 대상 집중설문 및 인터뷰, 토론회 등 후속연구를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고 종책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종교계,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연대

3대종교, 4월22일 토론회
'종교의 사회적 역할'모색
지몽 스님, 기도회 제안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생계의 사지로 몰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 종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불교, 가톨릭, 개신교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재차 약속했다. 특히 불교계는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기도회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는 4월22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3대종교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발제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지몽 스님과 이주형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이 각 종교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혜진 위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정세와 요청' 발제를 통해 이 시점 불안정노동자들이 처한 실태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은 "그동안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비정규 · 특수직 등 불안정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 받고 있다"며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고통은 평범하지 않다. 노동 · 인권 등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삶이 무너질 뿐 아니라 사각지대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계에 대해 "연대체가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에 알려 사회보장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또 사람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3대 종교계는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조계종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사회적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당연히 종교가 있어야한다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탈종교가 가속화되는 요즘 종교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절망과 고통으로 힘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계가 이를 위해 개별적 신앙을 초월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종교계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별과 애도의 시간도 없이 떠나고 떠나보내야만 했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한 기도회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동국대 문과대학 교수 제자 위한 장학금 쾌척

20일 학교에 1000만원 전달

동국대 문과대학 교원 34명은 4월 20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찾아 "'코로나19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과대학 교수들을 대표해 김환기 문과대 학장, 장영우(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 이장욱(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 박광현(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 김영진(철학과) · 박명관(영어영문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문과대학 교수들이 모은 것으로, 문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에 대해 윤성이 총장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 주셔서 더없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동국대 문과대학 교수를 대표해 장영우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사진 오른쪽)가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4월 20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사진 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